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과정' 특별 자체감사 착수

공무원이 심사위원 명단유출... 경찰, 금전 대가·윗선 개입 여부 조사 금고 운영 기관, 30년만에 농협에서 KB국민은행으로 바뀌어

30년 만에 농협에서 KB국민은행으로 바뀐 광주 광산구의 1급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금고지정 담당

공무원 A(6급)씨가 심사위원 명단을 1급고 유치 경쟁에 나선 농협과 국민은행 양쪽에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명단을 넘긴 시점은 금고선정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심사위원 9명을 확정하

지날달 23일로 알려졌다.

명단만 건넨 국민은행과 달리 농협 측으로 부터는 당일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광산구는 확인했다.

A씨가 금전 이익을 대가로 은행에 심사위원 명단을 넘겼는지, 구청 윗선도 개입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광산구는 5천585억원의 기금을 운용하며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급고 선정 심의 과정에서 은행 측 로비를 막고자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선정했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파문이 예상된다.

광산구가 확인한 결과 명단유출 이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반나절 사이에 은행 양측의 심사위원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

은행 직원이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잘 봐달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광

산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광산구는 자체 특별감사에 들어갔으며 이와 별개로 광주지방경찰청도 내사에 착수해 금고선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A씨 등 담당 공무원을 잡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금고 심의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광산구 내부에서는 농협이 법원에 제기한 금고 계약금지 가처분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재심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일단 법원 판단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심사위원 대부분 농협은 준비 부족으로 탈락했을 뿐 '잘 봐달라'는 수준의 로비가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파문이 확산하자 입장 자료를 내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3일 밤 우리 직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먼저 해왔다"며 "당

시 식사 접대는 없었으며 A씨가 국민은행에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했다고 고백했다"고 해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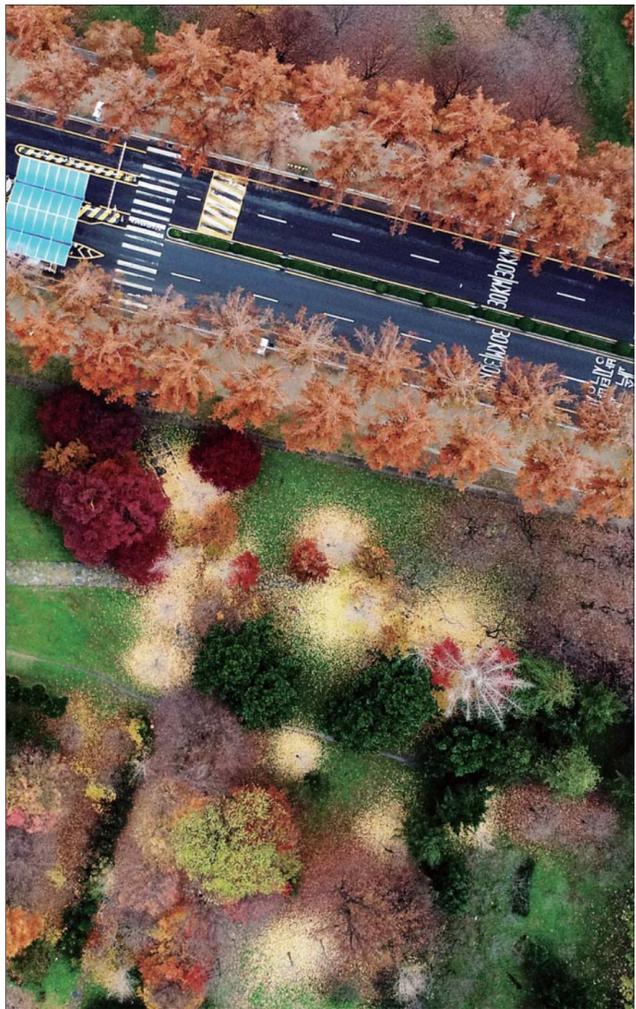
농협은 "24일 오전 지역 조합장 등 10여 명이 구청을 방문해 공정한 심의를 요청하고 사전유출에 대해 항의하자 A씨가 우리에게도 심사위원 명단을 전달했다"며 "명단은 국민은행에 먼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광산구는 지난달 24일 오후 구 금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을 1급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국민은행은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를 농협보다 3배 많은 64억4천만원의 제시했다.

연간금리도 국민은행은 2.12%를 제안했는데 1천400억원인 예치금을 3년간 맡겼을 때 이자 수익이 농협보다 약 23억원 많다.

농협은 1988년 광산군이 광주에 편입된 후 처음으로 광산구 금고를 다른 은행에 내렸다.

/광산=고훈석 기자 ghs@



물감을 떨어트린 듯

은종일 기량비가 내린 지난 16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이 비에 젖어 짙은 늦가을 정취를 풍기고 있다.

광주시, 지역화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광주은행' 선정

협상 거쳐 사업시행자 확정... 내년 출시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광주광역시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지역화폐인 광주사랑 카드상품권 운영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광주은행이 선정됐다.

"지역화폐(광주사랑 카드상품권) 사업"은 지역 자금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 시행됐으며,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15일 7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평가위원회는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의 제안을 평가해 광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했다.

광주시는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거쳐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사업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도립대, 코리아 푸드&비버리지 컨티발서 금상

전남도립대학교(총장 김대중)는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2018 제4회 코리아 푸드&비버리지 컨티발(Korea Food & Beverage Contival)에서 카테일 믹솔로지 부문과 플레이 부문에서 7명의 학생

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푸드&비버리지 컨티발은 모든 식음료 종목이 참가하는 전국대회다. 올해 매년 전국의 수많은 식음료 전공학생이 참가해 경연하는 행사로 우승자에게는 국가

대표로 세계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에선 한국의식음료협회 주관으로 커피 바리스타, 와인 소믈리에, 각테일 믹솔로지, 플레이, 호텔 식음료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해 식음료를 전공하는 전국 60여 학교, 300명의 학생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담양=강종연 기자 jibest1@

광주 제2순환도로 포장 보수공사

19일~12월10일, 지원IC~서창IC 내 노후 포장도로

광주광역시와 광주순환(주)는 광주제2순환도로 지원IC~서창IC 구간 내 노후 포장도로를 보수한다.

포장 보수공사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출퇴근시간을 피해 제2순환도로 분선 구간을 1개 차로씩 절삭한 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제2순환도로 지선 구간인 지원IC 램프 구간, 효덕IC 램프 구간, 서창IC 램프 구간은 1개 차로로 운영중이므로, 불가피하게 야간에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작업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과 우회 방법 등은 현수막을 걸어 안내하고,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을 접수(062-220-8830)해 도로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보수공사로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시 일정과 우회 시 이용 도로 등을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장흥서 전국 컷 귀어 스포츠엑스포

귀어 희망자와 어촌계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남도가 오는 24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귀어 스포츠엑스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귀어 스포츠엑스포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전남의 우수 어촌계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직접 만나 상담하는 자리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각지의 귀어귀촌 희망 도시민 100여 명을 초청했다. 귀어인 유치에 적극적인 장흥시, 여수안동 등 20곳에서 홍보 부스를 설치해 이들과 상담하게 된다.



누워만 있어도 노폐물이 펑펑!

100% 자연열! 편백효소 찜질!

"면역력은 쭉~욱! 노폐물 짹~악! 다이어트와 힐링을 한번에!"

편백나라

효소공

예약문의
062) **372-5888**

광주 서구 상무지구 새정아울렛 건너편 동양사우나 2층

25

WELLNESS

웰니스관광
25선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각 방송국에서 절찬 소개된 편백효소찜질의 효과

체온도 올리면 자연면역치유력이 5배증가한다?
미생물의 자연열에 의한 1.체온상승에 의한 면역력 증강 효과
2.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배독효과 3. 혈액순환을 원활하게하는 기혈작용
4. 전신의 혈자리를 자극하는 통효과

편백나라 효소공 5코스

1. 편백효소욕(15분) 2. 기계마사지(15분)
3. 편백 적외선 반신 욕(20분) 4. 파라핀, 족욕 5. 허브찜질

편백나라 효소공! 대한민국 대표 힐링 명소 "웰니스 25"선정 (광주 단 1곳 선정) 기념 세일!

웰니스25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추천하는 대한민국 대표 힐링명소, 25곳 선정
주관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체인·가맹점문의

* 광주지점 : 남구, 목곡, 광산구, 동구 각 1개소
* 전남북지점 : 여수, 광양, 담양, 화순, 나주, 목포, 영광, 진주 각 1개소
150명이상 사업면적

문의전화 010-9282-8088